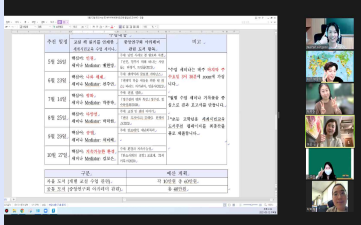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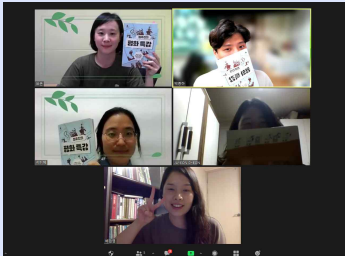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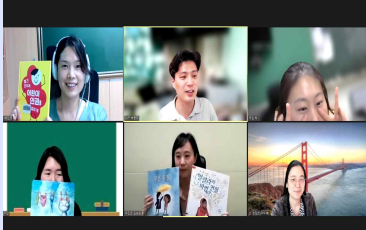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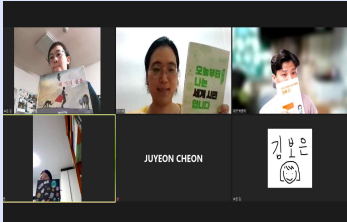


2021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분과연구모임 결과 보고서

분과연구모임명	스위치(SWITCH)
대표교사(소속)	배현명(서울성원초)
회원교사(소속)	김보은(대구덕인초), 박덕현(서울용마초), 천주연(경기수내초), 차미혜(서울청담초), 박종하(대구비슬초)

추진 일정	수행 내용	관련 사진
5월	스위치 첫 번째 수업 세미나 ◇ 핵심어: 인권 ◇ 주제: 나의 인권 수업 이야기 ◇ 일시: 2021년 5월 26일(수) 15:30 ~ 18:00 ◇ 도서: 난민, 멈추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 퍼실리테이터: 배현명	
6월	스위치 두 번째 수업 세미나 ◇ 핵심어: 나와 세계 ◇ 주제: 코로나 19 이후에 대한 논의 ◇ 일시: 2021년 6월 30일(수) 18:00 ~ 20:00 ◇ 도서: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텐 레슨 ◇ 퍼실리테이터: 천주연	
7월	스위치 세 번째 수업 세미나 ◇ 핵심어: 평화 ◇ 주제: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조건 ◇ 일시: 2021년 7월 14일(수) 18:00 ~ 20:00 ◇ 도서: 정주진의 평화 특강 ◇ 퍼실리테이터: 박종하	

8월	스위치 네 번째 수업 세미나 ◇ 핵심어: 다양성 ◇ 주제: 젠더 모자이크 ◇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18:00 ~ 20:00 ◇ 도서: 젠더 모자이크 ◇ 퍼실리테이터: 박덕현	
9월	스위치 다섯 번째 수업 세미나 ◇ 핵심어: 공정 ◇ 주제: 정의로운 교실과 가짜 뉴스 ◇ 일시: 2021년 9월 25일(수) 18:00 ~ 20:00 ◇ 도서: 가짜뉴스 경제학 ◇ 퍼실리테이터: 차미혜	
10월	스위치 여섯 번째 수업 세미나 ◇ 핵심어: 지속 가능한 환경 ◇ 주제: 기후위기와 환경교육 실천 ◇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18:00 ~ 20:00 ◇ 도서: 탄소사회의 종말 ◇ 퍼실리테이터: 김보은	

연구 산출물	
산출물 형태	1. 세미나 노트 (공유문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Lp3hVMv_XSb4VebkPkWACAu2CBdR_6Meq61ma_xbJw/edit?usp=sharing 2. 세계시민교육 도서추천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view/switch21 (※ 11월 말까지 작업 완료 예정)
내용 요약	책 읽기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모임, 스위치(SWITCH)입니다. 2021 스위치 연구모임은 이런 방향을 향해 갑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에 매개가 될 수 있는 좋은 책을 사서 함께 읽고 둘째,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들과 책을 통로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한 뒤 셋째, 그 과정에서 발견하고 느낀 것들을 깊이 있게 소통하는 수업 세미나를 가집니다. 넷째, 수업 세미나에서 소개된 책들을 온라인 웹페이지로 구축하여 모두의 세계시민교육을 돕습니다.

사유의 기반을 넓히다

사전 모임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 논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탐독 도서를 정했습니다. 2021 스위치 모임이 논의한 세계시민교육의 여섯 가지 주제는 인권, 나와 세계, 평화, 다양성, 정의, 지속가능한 환경입니다. 각 주제별 관련 도서로는 『난민, 멈추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텐 레슨』, 『정주진의 평화특강』, 『젠더 모자이크』, 『가짜뉴스 경제학』, 『탄소사회의 종말』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세미나 이전에 개별적으로 탐독했습니다. 탐독 도서의 역할은 세계시민교육의 논의가 교실 실천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주제별 현안을 폭넓게 이해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관심 가지지 못했던 부분을 두드려보는 등, 세계시민교육의 시야를 넓히는 스프링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인권 X 난민, 멈추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5월 26일 15시 30분 스위치 수업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재연합니다.
첫 모임이라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모임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서로의 생각들이 공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1. 주제: 나의 인권 수업 이야기 &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인권 도서 추천

2. 세미나 방식

1) 모든 선생님들이 주제에 관해 돌아가며 발언합니다. (각 10분)

2) 꼭 5월 26일 전에 인권 관련 수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지 않아주세요.

(이미 하신 수업 사례로 말씀 주셔도 좋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수업을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실패담도 환영입니다. 혹은 꼭 읽게 교실 내 인권 주제와 관련해 발생했던 에피소드,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평소 애 가졌던 의문들 혹은 생각들을 나눠주시는 방향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3) 교실에서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아이들과 함께 읽기 좋은 도서를 한 권 추천해주시고, 그 이유를 소개해주세요.

(내가 수업에서 이미 활용한 도서를 소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주세요. 학교도서관에서 인권 관련 도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훑어보고 한 권 추천해주는 방법, 누군가가 적용해서 좋았다는 추천, 편지 좋을 것 같다는 추천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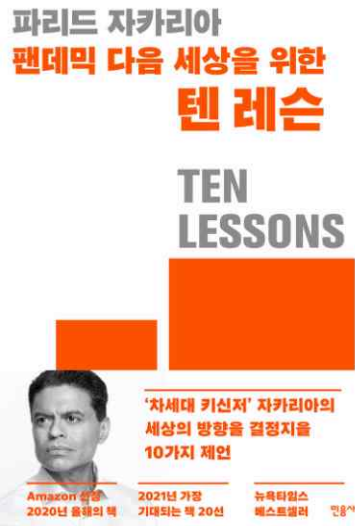
4) 세미나 후에 나의 이야기와 추천 도서를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나의 인권 수업 이야기 (형식 자유) 그림, 영상, 검색어, 브레인스토밍, 원본 좋아요	인권 주제 관련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추천 이유	
적용 사례 (있으면 제약)	

◇ 질문거리

-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스스로 불편한 진실이나 감정을 마주할 질문을 던져줄 용기가 있는가?
- 아이들에게 이끌어 낸 경험과 자유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후속적 인권 수업이 가능할 것인가?
- 인권 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 차별과 차이는 무엇인가?
-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교사의 인권은 약화되는 것은 아닐까?
- 인권의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점은?

나와 세계 X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텐 레슨



스위치 두 번째 세미나 제안서

1. 일시 : 6월 30일 수요일 오후 6시
2. 주제 : 나와 세계
3. 세미나 순서
 - 가. 책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텐 레슨> 발제
진행자인 제가 책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 볼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나.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일까'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 등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합니다. 미리 생각해 오시면 좋을까요!
 - 다. 학생 대상 책 추천
'나와 세계'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함께 읽어볼 책 1~2권 정도 소개해드립니다.
- 6월 30일에 될것입니다.♥

◇ 질문거리

- 코로나 19 후의 도시는 어떠할까?
- 코로나 19 이후 세계화는 쇠퇴할 것인가?
- 세계 정세에서 패권을 쥐기 위한 역학적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 코로나 19에서 배운 교훈으로 세계시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평화 X 정주진의 평화 특강



<세계시민중앙연구회-7월 월례회 안내 자료>

제안자: 박종하

1. 일자: 7.21.(수) 오후 6시 ~ 7시반
(독서나눔 1시간 + 각자 준비한 '평화' 책소개 30분)
2. 주제: 평화
3. 활동 내용
 - 독서 나눔: 정주진 '평화 특강'
 - 평화 관련 학생들과 함께 읽을 도서 추천
4. 준비 사항(이라고 쓰고 숙제로 읽는다)
 - 정주진 '평화 특강'의 전반적인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 기억에 남는 구절
 - 공통 질문: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 우리가 평화 그 자체를 좇기보다 더 전제된 가치나 분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평화로운 교실, 학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 개별 질문 1가지 생각해오기
 - 학생들과 함께 읽을 평화 관련 도서 소개
5. 참고 영상
 - 유튜브에 정주진 작가의 평화 관련 영상 있음 (유튜브에 '평화란 무엇인가? 정주진' 검색)

◇ 질문거리

-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 우리가 평화 그 자체를 좇기보다 더 전제된 가치나 분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평화로운 교실, 학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 평화로운 우리나라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 비폭력 대화를 통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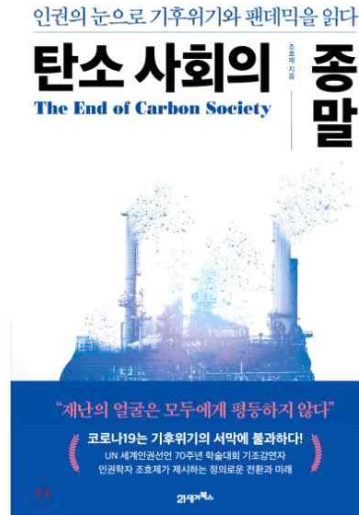
[illegible]

- 범주에 속하고자 노력해 본 적이나 경계에 속한 경험이 있는가?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유리한 성별 특성이 있는가?
- <젠더 모자이크>를 읽고 교실에서 알게 된 것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묶어 생각하는 범주에 속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가?
-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과연 정말로 타당한가?

[illegible]

- 디지털 플랫폼 시장 속에서 가짜 뉴스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정보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불리해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학생이 가짜 뉴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 시대의 흐름에 따른 매체 형태의 변화는 미디어의 공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 신뢰할 수 있는 언론들이 기사를 내거나 현상을 다루는 방식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 미래의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속 가능한 환경 X 탄소 사회의 종말



2021.10.27. (수), 18:00~20:00 @Zoom

김남원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후변화

1. 셀렉 나누기: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고민해 보자

A. 생활 속 경험: 나의 일상에 대해 생각해 보기

I. 친환경적 삶의 실천에 대한 나의 경험, 경험?

II.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 또는 단체가 있나?

III. "기후변화"와 인권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p. 139)

B. 수업 경험: 키워드를 미리 생각해 주시오. (10대 5개, 20대 4개, 30대 3개)

I. 내가 생각한 좋은 환경 수업은? 고민거리?

II. "환경"을 주제로 읽은 책상책상의 활동, 대화,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간단히) 공유해 주시오.

2. '탄소 사회의 종말': 책에 대한 전체적 느낌, 인상적 부분을 나누어 보자

"기후위기를 인간 사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유망한 미래 변화의 기회가 있어서는 ~ 개인과 사회, 개인과 지역과 국가, 개인과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 필요가 절실하다. 인본가 윤석현교수를 소개한 책상책상의 소개한 개인적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사회에 대해 담고 있는 다양한 '구조'를 인식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모두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p. 66)

A. 기후 위기의 성격: 책에 책의 변형에 대한 것(p. 80), 수업은 책상책, 권력(권력)과 책상

I. 책상의 역할, 우리 나라의 현실으로 어떻게 될까?

II. 책상 책상, 그 책상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계속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할 필요가 있다.

III. 1980년 12월 10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여 발표된 것이기 때문이다. (p. 66)

3

◇ 질문거리

- 친환경적인 삶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까?
- 기억에 남는 환경 수업이나 경험은?
-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 환경 교육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분리수거, 대중교통 등) 너무 소극적이고 뻔한 느낌인데, 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기후 위기는 정말 대비해야 하는가?
- 환경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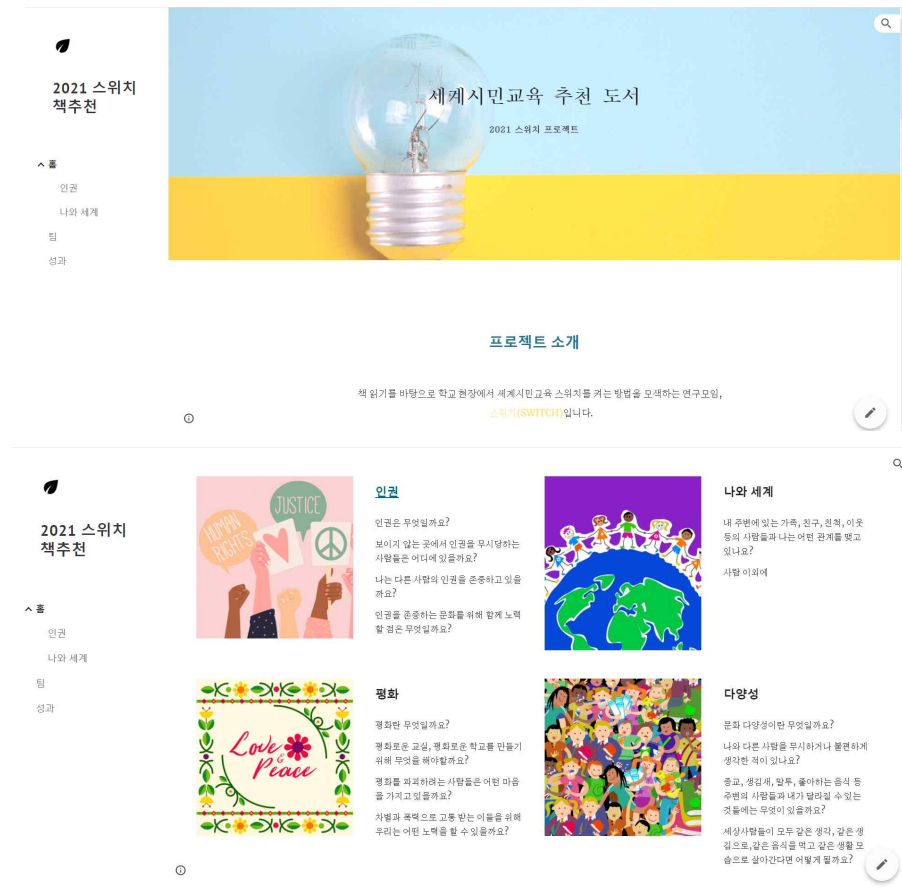
수업으로 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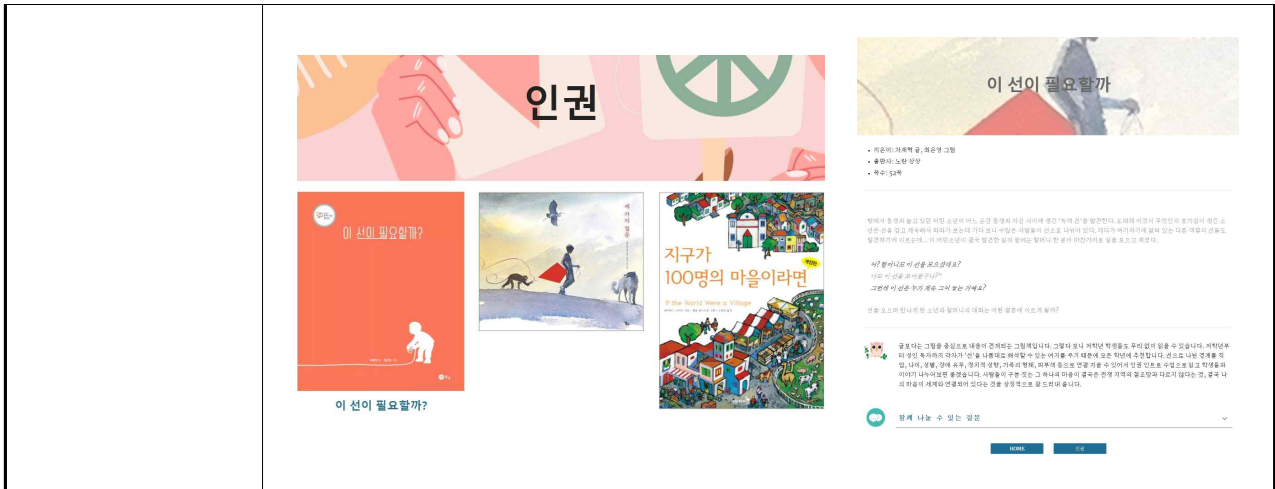
주제별 선정 도서를 탐독하고 사유한 바를 바탕으로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들과 책을 통로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한 후, 그 과정에서 발견하고 느낀 것들을 깊이 있게 소통하는 수업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수업 세미나는 주제와 관련하여 교실 수업을 실천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 혹은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서로의 교실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성장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추천된 학생 도서는 패들렛 공동작업을 통하여 추천 이유, 나눌 수 있는 질문 등을 차곡차곡 정리하였습니다.



스위치 너머, 모두를 위한 아카이빙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별 세계시민교육 추천도서를 정리하여 온라인 웹페이지로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교실 속에서 실천하고 싶지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선생님들께, 언제든지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의 세계시민교육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2021 스위치 연구회가 세워놓은 뼈대 위에 든든한 살을 붙여나가리라 기대해봅니다.





연구 소회 및 기타 의견

스위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문제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교육 철학과 경험을 나누며 공감과 인사이트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연구분과에 참여한 신 선생님들의 소회입니다.

- 천주연 :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주제별로 탐구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찾고, 관련 수업 경험을 공유하며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밑거름을 얻은 시간이었다.
- 배현명 : 스위치 모임은 형식과 내용 모두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그 자체였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세미나를 계획하고 제안하고 리드하는 방법론적 실천이었고, 내용적으로는 인권, 나와 세계, 평화, 다양성, 정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키워드로 심도 있는 논의와 열린 대화를 나눴다. 또, 모임의 연구결과가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둔 모든 이들에게 공유 가능하도록 세계시민교육 추천도서 웹사이트의 뼈대를 만든 것도 의미가 크다. 선생님들께 세미나 진행의 격,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이 세계시민교육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스위치 연구모임이 일상에 매몰되기 쉬운 세계시민교육 실천의 빛을 지속해서 밝혀준 불씨였다. 앞으로도 이 의미 있는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 김보은 : 온라인 모임을 통해 매달 선생님들을 만났고 거대한 주제로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무겁고 어디에서부터 다루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주제들이지만 실제 우리가 풀어내는 이야기와 고민들은 일상, 교실과 맞닿은 것들이었다.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에 공감도 해가면서, 각자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 차미혜 :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폭넓은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스위치 선생님들과 함께 독서모임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각자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퇴근 후에도 이 모임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하면서 저녁 시간을 훌쩍 넘겨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배움의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권, 다양성, 평화, 정의,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선생님들과 토의해보면서, 다양한 입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임이 계속되어, 다양한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 박종하 : 스위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 제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알고 교육 방향과 경험을 나누며 공감과 인사이트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박덕현 :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알차게 토론하고 짝 채운 분과 연구를 경험한 기억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스위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배움을 주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라든지, 고민의 지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스스로 철학을 확립하는 시간이었기도 했다. 주제가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데, 그 고민과 사유의 지점들로 수업으로 어떻게 녹여 낼지에 대해 동화책으로 함께 풀어나간 점이 아주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로 선생님들과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기타: 예산사용내역 정리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ykGQ3QkWgCn7DZ59s6mzJ0sJJPuSp0epATNXvVBtbc/edit?usp=sharing>

끝.